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수요성경공부

이번 주 수요성경공부는 친교실에서 7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4. 종려주일&고난주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한주간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5.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뜻깊은 부활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 Well Dying 세미나

오늘 예배 후 아래층 친교실에서 주일애찬을 갖은 후에 4시부터 이은정 박사(AARIN 대표, KIMCHI 커뮤니티 리더)님을 모시고 웰다잉 준비 5단계 사전의로 계획으로 준비하기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3/17)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52.00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5:17-2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죄사함의 권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3월 31일(부활주일)	4월 7일
윤한진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격주)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20) 한적한 곳으로

본문 : 눅5:12-16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면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복을 베푸는 종교가 아닌 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원관으로 볼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은 단지 기복적인 치유나 문제해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나병환자는 당시 시대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람들 근처에 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도 당시 시대속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나병환자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병을 얻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피부가 썩어들어간 환자가 하루 아침에 애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안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치유한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함으로 나병이 깨끗히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기적으로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시는게 아니었습니다. 신비적인 경험도 항상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축복이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도망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내 소원의 성취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